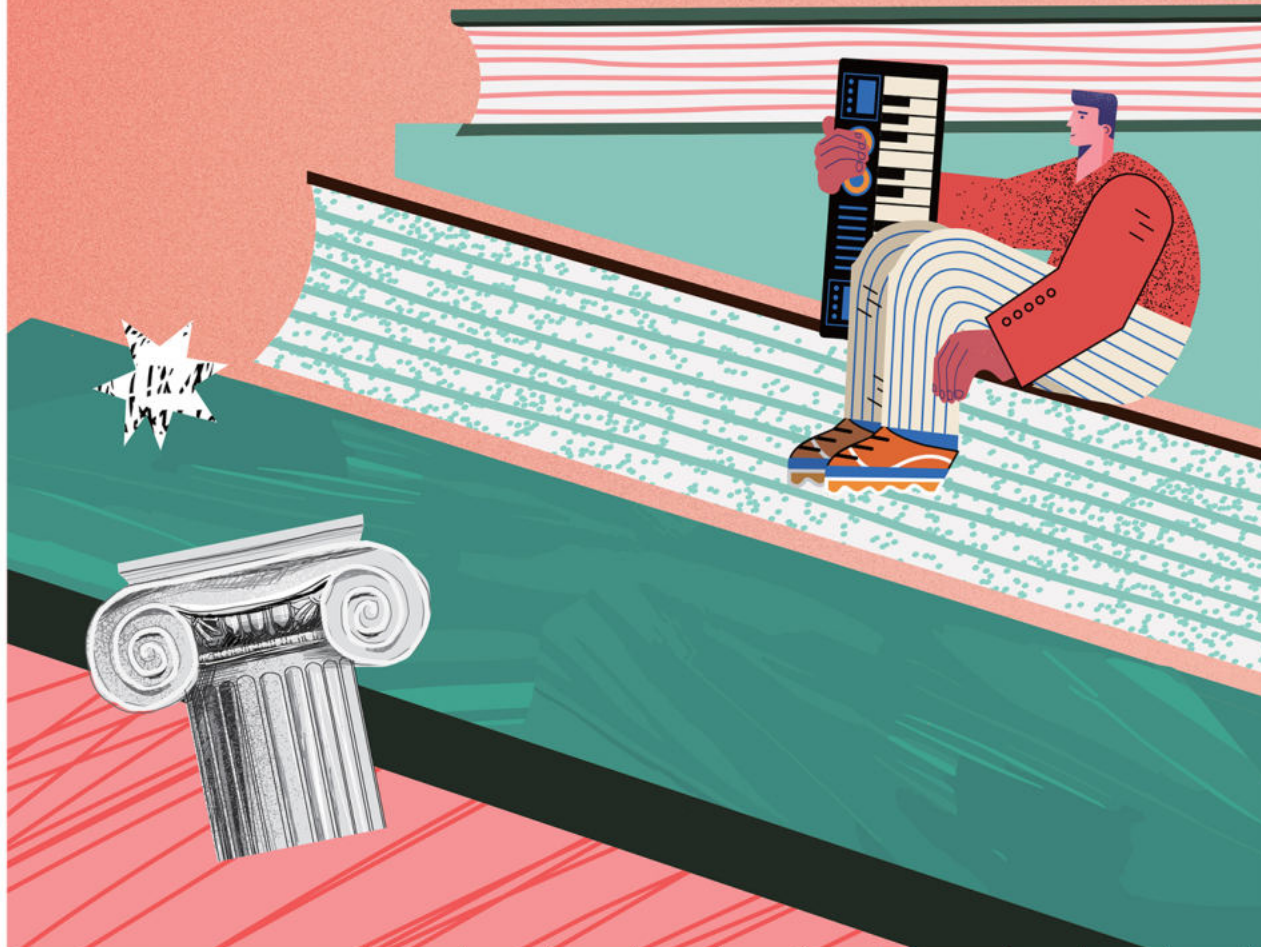


예술로 풍요로운 세상 살기

사람은 행복을 추구한다. 즉, 희망을 먹고 산다. 오늘을 잘 살고 싶고, 기왕이면 앞으로 더 잘 살고 싶다. 그러나 뭐든지 저절로 쉽게 되는 것은 없다. 그래서 여러모로 다양한 시도와 경험을 마다하지 않으며 성장하고자 노력한다. 그런데 세상은 넓고 생명은 유한하며, 물리적인 시공의 제약 및 체력의 한계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언제나 모든 것을 직접 체험하기란 역부족이기에 결국 성장을 위해서는 간접 체험이 필요하다. 체력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체험을 충분히 소화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저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책으로 하는 간접 체험을 추천한다.

글 임상빈(《예술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저자)



000 종류	100 철학	200 종교	300 사회과학	400 자연과학	500 기술과학	600 예술	700 언어	800 문학	900 역사
--------	--------	--------	----------	----------	----------	---------------	--------	--------	--------

한국십진분류법(KDC)의 예술이란?

도서관의 자료 주제를 열 가지로 구분하는 한국십진분류법에 따라 '오늘의 도서관'을 살펴본다. 일곱 번째 분류인 예술에는 조형미술 및 공예, 서예, 회화, 사진예술, 음악 등이 해당한다.

사람은 책과 함께 성장한다

우리 마음은 나뭇의 우주다. 그리고 그 우주는 여러모로 책에 반영된다. 실제로 책은 다양한 우주를 보여주는 매우 오래되고 유용한 도구로서 오랜 기간 우리와 함께했다. 비유컨대 도서관은 우주여행사, 그리고 독서는 우주여행이다. 다른 이의 고양된 마음속으로 들어간다니, 더 이상 축지법과 분신술이 남부럽지 않다.

한편으로, 대화도 상대방의 우주를 경험하는 좋은 기회다. 말뿐 아니라 표정과 자세 등,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암묵적 지식은 독서와는 다른 방식으로 스스로의 우주를 풍요롭게 하는 자양분이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저자와 독자가 대화하기란 불가능하다. 또한 문장 나뭇의 거리 두기와 사색의 기회, 그리고 재방문 가능성은 대화와는 다른 장점을 지닌다. 즉, 책은 잘만 활용하면 평생의 동반자로서 참 좋은 영양제인 셈이다.



행복을 위한 인문예술의 발전사

사람은 불안전하다. 그야말로 나약하고 참으로 불안하다. 따라서 마음을 다잡으려면 때에 따라 의지할 대상이 필수적이다. 이를테면 언제 어디서 맹수가 공격하거나 폭풍우가 몰아치거나 역병이 활개를 칠지 모르던 시절, 사람들은 다양한 '주술'에 의지했다. 훗날 이는 '종교'로 발전해 같은 믿음을 가진 이들을 특정 신이 든든히 지켜주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는 다분히 신비주의적이며 과학적인 검증이 불가능하다. 결국 절대적인 진리라는 사실을 굳건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이후 논리적인 공적 합의에 기초한 사회제도가 정착하고 각자에게 의무와 책임, 권리가 부과되면서 점차 '개인주의'가 유행하기 시작했다. 갈수록 문맹률은 낮아졌고 막연하게 신에 의지하기보다 스스로 힘을 키워 자신을 증명하려는 욕구가 높아졌다.

그렇게 등장한 것이 '대학' 교육 시스템의 발전이다. 그중 가장 먼저 주목한 분야가 바로 객관적인 외부 세계의 작동 원리를 파악하는 '자연과학'이었다. 종교가 아닌 과학, 신이 아닌 이성에 의지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런데 도무지 주관적인 마음 세계와 관련이 적은 '자연과학'만으로는 당연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발전한 것이 '사회과학'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심리학은 개인적인 심리, 사회학은 사회적인 현상에 주목하며 사람에 대한 이해를 증진한다. 물론 '과학'이라는 명칭에 걸맞도록 학계에서 논증 가능한 학문적인 일관성과 엄격성은 필수다.

그러나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이 추구하는 구조화된 방법론만으로는 개인의 내밀한 욕구를 채우기 어려웠다. 그렇게 등장한 것이 학문으로서의 '인문예술'이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특정 관심사에 주목하고 공감하며 여러 관점으로 논쟁을 즐겼다. 또한 다양한 담론을 파생하고 음미하는 등의 방식으로 내면세계를 다잡고 나름의 방식으로 사회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문학은 문장으로, 미술은 이미지로, 음악은 소리로, 무용은 몸으로 창의적인 표현을 생성하며 사람됨의 가치를 실현해 오기 시작했다.

가치로운 삶을 영위하는 방법: 예술

현재 우리 사회의 '대학'은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그리고 '인문예술'의 최고봉을 지향한다. 특히 '순수예술(fine art)'은 '자연과학'과 대립항의 긴장 관계를 형성한다. 우선, 순수예술은 객관적인 검증이 전제되는 무균실의 실험실 환경을 이상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즉, 그날의 날씨나 감정이 작업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자기표현에 충실하니 종종 실험자와 피실험자의 구분이 사라진다. 예술가는 내면으로 파고들며 스스로 자신을 연구하는 것이다. 나아가 물리적인 실재계의 공식 도출보다는 인식적인 마음계의 변수 생성이 관건이 되므로 주관적인 주체가 영위해 온 특별한 삶과 구체적인 가치관이 중시된다. 하필이면 그때 거기서 왜 그랬는지보다 총체적인 맥락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예술'은 보편적 진리보다 개인적 진실을 추구한다. 그리고 이에 매진하면 때에 따라 사회적으로 큰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예술에 유일한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술은 다양하다. 그리고 새롭다"라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개별자로서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는 '예술'은 사람과 상황에 따라 그 모양이 천차만별이다. 행복한 삶이란 개인의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며, 서로의 우주는 다 다르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순수예술'을 전공한 필자는 진실로 나를 표현할 때 총명한 만족감을 맞는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나의 삶은 예술적으로 승화한다. 이때 내 인생은 내게 중요하며, 결국 그 가치는 스스로 평가한다는 마음가짐이 중심이 된다. 기본적으로 내 안에서만큼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는 천상의 마술, 그것이 바로 '예술'이라고 말하고 싶다. 한 시상식에서 "아름다운 밤이예요"를 외쳤던 배우가 진정으로 아름다웠던 건 객관적인 실재로서 당시의 밤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마음, 그 자체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 현장에 함께한 모두의 마음이 똑같이 아름답진 않았을지라도 분명한 건 그때 그 순간, 몹시도 그 배우의 마음이 아름다웠다는 사실이다.

가치로운 삶을 도와주는 방법: 독서

'예술'은 명사적 실체로서의 '예술품'에 국한하지 않는다. 오히려 동사적 과정으로서의 '예술하기'가 보다 적합한 예술에 대한 이해이다. 예컨대 인류학을 한다는 것은 인류학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에 걸맞은 방법론으로 연구를 수행함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예술'을 한다는 것은 예술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에 걸맞은 방법론으로 연구를 수행함을 의미한다. 이를 확장하면, 예술 표현을 하는 예술가만 '예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가 된다. 오히려 예술 감상을 하는 관람객도 '예술'을 하는 것이다. 예술을 감상하는 동안 마음 안에서 예술적인 상상력을 발동하고 다양한 관점으로 이를 음미하며 토론하는 과정 자체가 매우 예술적인 행위인 것이다.

물론 어떤 학문이건 단숨에 뛰어난 연구자가 되기는 어렵다. 오히려 오랜 세월 동안 깨닫는 영감과 지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예술하기'도 마찬가지이다. 예술 학문의 특성상 개인이 주체가 되고 예술가의 마음이 대상이기에 그 원리와 요령을 잘 숙지한다면 비교적 다른 여러 학문에 비해 접근이 수월할 수도 있다. 이때 '예술 도서'가 기능한다. 예술을 통해 풍요로운 삶을 사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두 종류로 나누자면, 우선 목적론적으로 '스스로 예술'이 되는 경우는 시나 소설처럼 그 자체로 예술품인 경우다. 다음, 방법론적으로 '예술하는 안내서'는 역사나 비평처럼 예술에 대한 설명과 이해를 도모하는 경우다. 그리고 이 둘의 공통점은 모두 다 알게 모르게 글쓴이의 우주를 펼쳐 보인다는 것이다. 따라서 찬찬히 관련 도서의 글을 읽으며 그의 생각 알고리즘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스스로 '예술하기'에 익숙해진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다. 독서는 수많은 암묵적인 생각 연습으로 점차 우리를 성숙시킨다. 특히 예술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세상을 잘 사는 궁극의 비법이 될 수 있다. ㉞

임상빈

현대미술 작가로서 국내외 여러 기관에서 미술작품 활동을 활발히 전개 중이다. '세종도서'로 선정된 《예술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2019) 등, 지금까지 총 8권의 저서를 출간했다. 현재 성신여자대학교 서양화과 교수이자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